
美合衆國 「빌 클린턴」大統領 國會訪問에 대한 國會議長 歡迎辭

-1993年 7月 10日-

美合衆國 빌 클린턴 大統領 각하 내외분, 존경하는 訪問團 일행과 內外貴賓,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본인은 大韓民國 國會의 여야 의원들과 더불어 美合衆國의 빌 클린턴 大統領 내외분께서 이곳 韓國議會民主主義의 殿堂을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大統領께서 세계의 지도자로서 가꾸어 오신 未來를 향한 理想과 抱負를 이 자리에서 직접 듣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閣下!

본인이 학창시절 때부터 탐독해온 美國의 詩人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는 “모든 것은 변한다—뭔가 새로운 것으로, 뭔가 낯설은 것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세기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脫冷戰時代의 不確實성과 소용돌이치는 變化의 물결에 직면한 오늘날의 현실속에서, 우리는 그 말의 意味를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閣下께서 세계에서 가장 責任이 莫重한 자리에 오르면서 행하신 就任辭 가운데, “變化를 우리의 敵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 “美國의 復活”을 이룩하고 새로운 시대로 國際社會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시던 늙은 모습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未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創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새로운 文民政府의 출발과 더불어 果敢하고도 能動的인 改革을 통해 新韓國의 건설을 위한 變身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韓·美 양국은 전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友邦이며 가장

긴밀한 同伴者로서, 民主主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새로운 시대의 창출을 위해 함께 21세기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大統領 閣下께서 취임후 외국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議會演說을 우리 國會에서 하시게 되었다는 것은 兩國間의 特別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 더 큰 關心과 熱意, 그리고 愛情을 갖고 閣下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클린턴大統領께서 우리 국민의 따뜻한 友情을 美國議會와 국민에게 전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大統領 閣下!

우리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韓·美 양국과 아시아·太平洋地域, 더 나아가서는 世界에 대한 閣下의 未來指向的인 識見과 희망찬 信念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演說을 하시기 전에 그 智慧와 力量과 아름다움으로써, 새 時代의 새로운 令夫人像을 보여 주고 계신 「힐러리 로덤 클린턴」 女史께서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따뜻한 歡迎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대하시던 美合衆國의 빌 클린턴大統領을 소개합니다. 會